



# 보도자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 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3. 3. 25.(토) 조간 2023. 3. 24.(금) 11:00	배포 일시	2023. 3. 24.(금) 06:00
담당 부서	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 최성용 (044-200-5810)
		담당자	사무관 김희곤 (044-200-5825)

## 세계해사대학 재학생 초청, 우리나라 해사·조선산업 선진화 현장을 알리다

- 세계해사대학(WMU) 재학생 방한 해운·조선 산업 및 정책 현장 방문 -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3월 25일(토)부터 4월 1일(토)까지 일주일간 세계해사대학\*(World Maritime University) 재학생 초청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한다.

※ 국제해사기구(IMO)의 부설 대학원으로 IMO 회원국 정부 공무원 및 관련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해사안전·환경·물류·해양정책 분야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을 운영

세계해사대학 초청 연수프로그램은 각국의 해사(海事) 전문가로 활동하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선진 산업현장 및 해사정책을 소개하는 행사로 2004년에 시작되었다. 코로나 19로 중단된 후 4년 만에 재개되는 금년 행사에는 10개국\* 12명의 재학생과 인솔자 2명 등 총 14명이 참여한다.

\* 대한민국, 가나, 모리셔스, 아르헨티나, 안티가바부다, 카보베르데, 파키스탄, 페루, 필리핀, 호주

이번 방한연수는 ▲ 부산항 견학, ▲ 한국해양대학교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선원 교육기관 방문, ▲ 울산 현대중공업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등 첨단 조선산업 시찰, ▲ 해양수산부 방문 및 ▲ 문화체험 등으로 구성된다.

홍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“우리나라의 초청 연수프로그램이 세계해사대학(WMU)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현장연수 프로그램 중 하나로

알고있다.”라며, “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해사분야 기여에 대한 위상을 알리고 훗날 졸업한 학생들이 자국의 해사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우리나라의 우호세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.”라고 말했다.



**참고****일정, 과거 사진 등**□ **주요 일정(잠정)**

일자	주요 구성
3.25.(토)	○ 방한 재학생 입국(김해공항)
3.26.(일)	○ 경주 불국사 등 역사명소 탐방
3.27.(월)	○ 부산항만공사 항만안내선 승선을 통한 부산항 투어 ○ 한국해양대학교,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선원 교육기관 방문
3.28.(화)	○ 한국선급,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국립해양박물관 방문 ○ 부산 국제시장, 자갈치 시장 등 문화체험
3.29.(수)	○ 울산 현대중공업,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등 방문
3.30.(목)	○ 세종 해사분야 주요 정부기관(중앙해양안전심판원, 첨단해양교통관리팀 등) 방문 ○ 서울 세계해사대학 동문 교류 행사 참석
3.31.(금)	○ 선박 첨단 기술 개발 업체 방문 및 서울 지역 문화체험(롯데타워, 경복궁 및 동대문시장 등)
4.1.(토)	○ 방한 재학생 출국(인천공항)

□ **과거 사진**